

전주시,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

환경부 시범사업 전국 최초 추진... 마을단위 빗물이용시설·가정빗물 저류시설 등 구축

버려지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빗물이용 시범마을이 전국 최초로 전주시에 들어선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권혁신)는 8일 올해 국비 1억5000만원 등 총 9억원을 투입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역연계와 실정에 맞는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빗물이용시범마을은 마을단위로 집적화된 빗물이용시설과 관련시설을 구축, 지속가능한 친환경 대체수자원인 빗물을 재이용해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물 순환 체계구축(회복) 등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로 올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전주에서 최초로 추진된다.

시는 마을공동체를 구성해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참여의지가 높은 마을을 선정해 시범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향후 공동체를 구성해 가정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가정에서 처리한다를 기본방향으로 '가정빗물 유출 제로화 협약'을 체결하고 빗물을 테마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재학생들이 우선 아닙니까?”

8일 전북대학교 의대생들이 대학본부 앞에서 서남대 특별편입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해당마을에는 총 2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과 가정빗물 저류시설, 여과기능이 탁월한 탄소여과장치 등이 설치돼 주민들이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게 된다.

1,850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전체 시설의 88%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시민들의 빗물이용율이 타 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빗물이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빗물자원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써왔다. /채규남 기자

생활민원 적극해소 당부

이철수 완산구청장 취임



제28대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 이철수 국장(사직)이 8일자로 취임했다. 이철수 신임 완산구청장은 과,동장 단 상견례 후 각 부서를 순방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끝냈다.

이날 부서 순방시에 직원들과 약속하며 선진 완산구청 경인을 통하여 전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모든 정책에 헌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특히 이 구청장은 간부진과의 자리에서 “소의계중 발골 지원, 불법주정차 등 생활민원 적극 해소, 민원발생시 대화로써 해결할 것”을 당부했으며 한옥마을 등 구도심을 관할하는 완산구가 앞장서서 전주가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도약하도록 노력해가자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현장 속에서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직접 듣고자 곧바로 완산구 현안사업 점검과 기관단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현행정에 바로 돌입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1988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전북도 차세대식품과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 기획조정국장을 역임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보건소, 비만 관리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전주시보건소는 8일 고도비만자를 위한 ‘넷미인’과 경도비만자를 위한 ‘넷살탈출’로 구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넷미인(BMI 30이상)은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넷살탈출(BMI 23이상)은 15일부터 19일까지다. 비만 관리프로그램은 모집 후 1주일 후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맞춤형 영양교육과 근력 및 유산소 운동 등 주 2회, 7주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보건소는 지난해 총 67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결과 전체 참여자의 88%가 체지방률이 감소했고 88%는 비만도(BMI)가 개선됐다. 또 전체 참여자의 45%가 복부지방이 감소했고 55%는 근육량이 증가했다. 참가 신청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063-281-6334~5)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모집... 8일~12일까지 904명

전주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노노케어(연중) 사업 참여자 904명을 모집한다. 노노케어 사업은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과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인부확인 및 말벗, 생활 안전 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규모는 지난해(668명)보다 236명 늘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등 12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접수할 수 있다. 선발기준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 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올해 노노케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매월 30시간 활동하고 월 2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또 참여자 보호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 혜택도 받는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소형 전기차 커뮤터카(BASTA) 개발

3D프린팅 기술·탄소복합재 적용 자체 기술 개발... 시정 1층 로비 9일~15일 전시

전주시는 주력산업인 탄소섬유복합재와 3D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인 소형 전기자동차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정동철, 이하 기술원)은 8일 전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순수 자체기술로 탄소복합재 적용 3D프린팅 기반의 친환경 전기자동차인 커뮤터카(BASTA)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커뮤터카(Commuter Car)는 개인소형과 톨카 등 단거리 주행용 소형차에 적용되거나 공원 또는 관광단지 등의 일정한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근거리 이동용 친환경 자동차로 적용이 기대되는 미래형 교통수단이다.

향후 커뮤터카 제조 기술이 상용화까지 이어지면 전주지역 탄소기업과 3D프린팅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원 오제하 박사 연구팀은 지난 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대형 3D프린팅 장비와 탄소섬유강화 프린팅소재, 프린팅 소프트웨어,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 등 3D프린팅 관련 기초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3D프린팅 기술은 디지털 설계 데이터를 이용해 소재를 쌓아 올려서 3차원 형상의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로 별도의 금형제작 없이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손꼽힌다.

기술원은 소형자동차 정도 크기인 가로 2.5m 세로 2.5m 높이 2m 제품을 한 번에 고속으로 프린팅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크기의 대형 3D프린터(SSAM: Super-Size Additive

Manufacturing system)를 자체 개발해 이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커뮤터카는 프린팅에 49시간, 조립에 9일, 페인팅에 1일이 소요돼 향후 사용자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디자인한 자동차를 빠르면 1주일 만에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시와 기술원은 대형 3D프린팅 기초기술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핵심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한편 시와 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커뮤터카를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전주시정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며 3D프린팅 과정과 커뮤터카 제작 과정은 시청 1층 로비에 설치된 스크린 모니터와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완주 송유관 절도범 2명 대구서 화상치료 중 붙잡혀

완주에 있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려다 화재를 일으키고 달아난 2명이 대구서 화상 치료를 받던 중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8일 절도 미수 혐의로 등으로 A(6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2시 57분에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의 한 야산에 매설돼 있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화재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송유관은 지름 45cm에 1.5m 가량 묻혀있었다.

화재는 아들이 기름을 훔치려 삼을 통해 흠을 파낸 뒤 드릴로 구멍을 내려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중상을 입어 담당 조사가 힘들다며 ‘이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 중 달아난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고물상 고물 훔쳐 판 40대 입건

평소 거래하던 고물상 업자가 입원한 틈을 타 고물을 훔쳐 판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고철 수집업자 노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2시경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A(53)씨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들어가 146만원 상당의 고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평소 A씨와 자주 거래하던 노씨는 최근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한 틈을 타 해당 고물상에서 고물을 훔쳐 다른 고물상에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